

코스콤비정규 '100인 동조단식'

⌘ 노동과세계 | Ⓞ 승인 2007.11.20 10:11

코스콤 비정규지부 파업투쟁 승리, 직접고용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집단 항의단식

[사진1]

코스콤 비정규지부 파업투쟁 승리, 직접고용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100인 동조단식이 20일 벌어지고 있다.

코스콤 비정규지부 투쟁 승리를 위해 동조단식 의사를 밝힌 130여명과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들은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정문 앞 '비정규직 희망의 마을'에서 20일 오전 10시 코스콤을 규탄하는 집단 항의단식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서는 단식농성단 출정식에 이어 비정규 문화의 거리 꾸미기, 거래소건물 인간 띠 잇기, 백기완 선생 강연, 파업투쟁승리염원 8보1배, 통곡의 탑 앞 연좌농성, 뉴코아·이랜드·코스콤 3사 투쟁 집중문 화제가 펼쳐질 예정이다.

[사진2]이날 동조단식에는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미래에셋생명지부, 동양생명지부, 코리안리제보험지부, 현대해상지부, 손해보험노조, 에스케이증권, 기륭전자분회,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조, 씨제이투자증권, 언론노조케이비에스분회, 여성연맹, 사무금융연맹, 뉴코아노조, 전국축협노조, 생명보험노조, 메트라이프지부, 녹색생명지부, 뉴욕생명지부, 신한생명지부, 에이아이지생명지부, 민주법률원, 전비연, 민주노동자연대, 보험모집인노조, 증권업종본부, 이윤보다인간을, 서울일반노조,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안그라미, 지엠대우비정규지회 등 성원들과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 전원이 참여하고 있다. 집단 항의단식은 20일 하루 동안 전개된다.

이에 앞서 코스콤 비정규지부 이유근 조합원과 정인열 부지부장이 각각 19일·22일 동안 증권선물거래소 앞 망루에 올라가 항의단식 투쟁을 전개했다.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들이 단식농성을 벌이는 동안 민주노총 서울본부를 비롯해 연대단위 성원들이 릴레이 동조단식을 벌인 바 있다.

현재 코스콤 비정규지부는 남부지검, 서초대검찰청 앞에서 신속한 수사 진행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코스콤 주무부서로서 현 파국 사태를 신속히 수습하도록 촉구하는 재경부 앞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또 대선을 앞둔 후보들 대선캠프(이명박, 이회창, 정동연) 앞에서도 1인 시위를 강행하고 있다.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는 코스콤 비정규지부는 2개월 넘도록 전면

파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청인 코스콤의 사용자성을 부인한 뒤 단 한 차례도 교섭하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다. <흥미리기자>



노동과세계 kctu@nodong.org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